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전북교육 한단계 도약

전북교육은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으로의 새출발과 함께 '더 특별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AI기반 미래교실 구축, IB프로그램 확산, 학력신장, 해외연수 고도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분주히 달려왔다.

그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에 전북교육이 걸어온 1년을 돌아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개 영역, 18개 지표를 모두 우수한 실적으로 통과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16개를 통과(94.1%)했으나 올해는 18개 지표 모두에서 확연한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북교육력이 한층 제고됐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성과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 노력, 늘봄학교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지표에서 성과를 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별도의 특별교부금도 받게 됐다.

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4년 기록관리 평가에서도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록관리 평가는 △기록관 업무 기반 △기록관 업무 추진 △자체 기록관리 우수분야 등 3개 분야 12개 지표를 정량·정성으로 나눠 5개 등급을 부여하는데, 전북교육청은 99.93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 평균 84.1점,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93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의 기록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했다.

더불어 스마트철관 보급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2023년 3,105대, 올해 4,340대의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학급에 1,856대를 보급하면 도내 모든 학급에서 디지털 활용 수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모든 학교에 초고속 무선 AP를 구축해 미래교실 무선네트워크 환경 기반이 조성됐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에 올해만 2만1800여명의 교사들이 이수했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AIDT 디지털교과서 적용교원 연수'에도 8,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으로

전북교육청은 올 한해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처음 시작한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토대로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을 분석해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중학교 35개교 212학급, 고등학교 53개교 1039학급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학습지원 앱 '올라'를 보급해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이를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직원 1,500명, 중·고등학생 1만2,900명이 '올라'에 가입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총괄평가를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 자율로 맡겨 왔던 평가 방식을 강화한 것으로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7월과 12월 연 2회 실시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평가 과목은 국어·수학·영어는 물론, 사회·과학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올해 3월에 비해 12월 3차 향상도 검사에서는 평균 초등학교 66%, 중학교 37%, 고등학교 31%의 감소율을 보였다.

▲ IB 프로그램 확산... 8개교 IB 후보학교 승인

IB 프로그램 도입·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8개교가 IB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먼저 IB 후보학교로 승인된 용복중은 학생들이 다각도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세계적 맥락으로 탐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주아중초는 IB의 교육이념과 학습자상을 실제 수업 시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이 서로 독려하며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해 왔다.

화산중은 학생 맞춤형 교사 책임학급제 운영과 학생 주도의 탐구활동에 기초한 PBL수업 등 수업 개선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영만초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통한 수업혁신 의지를 담아 UOI, POI의 짜임새 있는 설계로 IB 익산지역 관심학교들을 선도해 왔다.

전주효문중, 회현중, 함열여자중은 IB 관심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원의 자발적 연구 활동 △적극적인 타 시도 월드스쿨 수업 및 사례 탐구 △IB 연수 참여 등의 활동으로 IB의 교육이념과 학습자상을 실제 교육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왔다.

도내 고등학교 최초 IB DP후보학교 승인된 지평선고는 학생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도서관 중심 학습, 인문학적 사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수업혁신을 선도하며, 최종단계인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때까지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교실 구축·IB 프로그램 확산

학력신장 등 10대 핵심과제 추진

학력향상 도전학교 등 학력신장 성과

올 초등 2·중학교 5·고교 1곳 등

도내 총 8개교 'IB 후보학교' 승인

학생해외연수·교육활동 보호 강화도

▲ 글로벌 인재 키우는 학생해외연수

학생해외연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각 교육지역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역사문화탐방을 비롯해 전북교육청에서 주관한 글로벌 프론티어 등의 프로그램에 총 2,8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기존의 문화 체험을 넘어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이다.

특히 글로벌 프론티어는 일상의 다양한 문제 원인을 탐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학생 주도의 자율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지난해 40개교에서 올해 61개교로 확대됐다.

▲ 교육활동 보호 강화... 선생님의 든든한 버팀목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교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된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각종 민원은 물론 민사, 형사,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마련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서거석 교육감의 소회

교육입도... 교육이 바로서야 전북이 산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꿉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 한해 '교육입도(教育入道)'라는 네 글자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 교직원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 각종 특강과 연수에서도 항상 강조해 왔다.

서 교육감은 "교육은 전북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다리고, 교육이 바로서야 전북이 살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 학력신장, 학생해외연

학력신장·교권보호 등 추진

"교육여건 단단하게 세울 것"

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에도 앞장섰다.

서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악성 민원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이 앞장서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번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며, 장학사와 전문상담사의 적극적인 컨설팅으로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 고도화, 교권보호 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는 "전북교육청이 지향하는 학력신장의 최종 목표는 학생에게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학력신장과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여건을 단단하게 세워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북



디지털교과서 시연



학생 학력신장



IB 후보학교의 수업



국제교류수업 전시



모두의 인권 존중 캠페인



교권침해 예방·보호 강화